

# 고흥군, 키위 꽃가루은행 운영

### 키위 개화기 맞아 다음달부터 2개월간 운영 돌입 예정 꽃가루 조제실·계약기·화분정선기 등 13종 32대 보유



고흥군은 키위 개화기를 맞아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꽃가루은행을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참다래는 바람, 곤충 등 자연수분에 의한

착과율이 낮아 인공수분이 꼭 필요한 과수로, 인공수분을 하면 꽃피 때 이상기상 피해나 수분수가 부족할 때 결실이 양호하고 과실의 품질과 당도가 높아지는 등 상품성이 향상된다.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꽃가루은행은 꽃가루 조제실, 계약기, 화분정선기 등 주요장비를 13종 32대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받아올 검사, 꽃가루 자가제조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공수분 후 남은 꽃가루는 이듬해 기상재해에 대비해 장기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음해 인공수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공수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꽃가루 사용 전에 반드시 받아들 검사를 수행해 줄 것과, 암꽃이 개화한 당일부터 4일 이내에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가능한 암술머리에 점액 분비가 많은 오전 9시 이전에 작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동취재본부



## 순천시, 자연생태계 및 길고양이 보호 민관 협약식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 추진

순천시는 최근 (사)대한동물사랑협회, 순천시 캣맘협의회, 한울타리보호협회 등 3개 동물보호단체와 자연생태계 및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민관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기동물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순천시와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동물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특히 그동안 스티로폼이나 종이상자로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도시미관 해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안내판을 제작

해 보급하고, ▲동물보호단체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주변 정결 관리는 물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동물보호 시민의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순천시와 동물보호단체가 협의해 길고양이 서식지 중 민원발생 우려가 적은 20여 곳의 장소를 선정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급식소는 캣맘 등 길고양이 보호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2인)를 배치하여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주변 청소 등을 통해 청결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여수시, 다음달 1일부터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 공모

여수시가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구입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입 대상은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서각 등 8개 부문이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개인전 2회 이상의 개최 실적이 있는 자 ▲기획전 또는 그룹전 3회 이상 출품 경력이 있는 자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 미술 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 경력이 있는 자 ▲국내외 유명 미술초대전에 출품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역 예술인은 오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여수시 문화예술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작품 선정과 구입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작품 구입을 위한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한 작품 당 5백만 원 이내에서 구입하게 되며, 상반기(6월) 내에 최종 구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061-659-57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년 동안 지역 작가의 예술작품 22점(구입비 총 8천 3백만원)을 구입해 시청 본청사와 문화홀, 시민회관, 달빛갤러리, 엑스포아트갤러리 등에 전시하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 광양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공모 선정

광양시가 전라남도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전남·광주 거주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광양 여행희망자 중에서 과급력이 큰 여행작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등을 우대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에게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비 등이 지원되며 참가자는 사진, 여행 후기 등을 개인 SNS에 올린 후, 남도여행길잡이 홈페이지에 수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점에 참가 신청을 받고 체류

기간, 여행목적, 홍보방안 등을 검토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자 한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해 홍보를 꾀하는 한편, 관광지 불편·개선사항 등 모니터링과 피드백 강화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숨은 여행지나 덜 알려진 여행지를 찾아 그곳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경험하려는 개별여행자들이 늘고 있다"며, "스치는 여행이 아닌 머무는 여행이 될 때 비로소 광양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 순천시의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순천시의회의회(의장 허유인)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최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기관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주민을 위한 성과주의 행정으로 지역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의회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종합대상은 순천시의회가 유일하다.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39건의 주민청원 처리와 더불어, 107일간의 회기 동안 234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순천시 집행부에 451건의 시정처리 요구를 한 바 있다.

특히 여순사건특위 및 정월박람회특위를 구성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여순사건특별법'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극



복을 위해 순천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한 공모 등이 이번 종합대상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김승호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